

지역 소식통

시민 생명·재산 보호 기여

정읍농기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일 '핵심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12일까지 '2018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갖는다. 교육은 각 읍·면·동 17개소 17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 등 농업핵심리더 15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벼와 고추 핵심영농기술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심농교육원 박영일 원장이 초청강사로 나서 선진농촌으로 나아가는 농업인의 자세란 주제로 인문학적 창의력 발달과 농심철학 마인드 함양에 대해 강연한다.

8일부터 시작하는 각 읍면동 교육은 벼와 고추의 영농기술과 전년도 영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올해 중점 영농기술,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농정시책, 농기계안전교육 등 알찬 내용으로 꾸며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서, 교통안전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5일 산외면 평사리 외 3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작년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고는 보행자와 이륜차 사고로, 전체 사고발생의 8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의 경찰은 관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 절대 금지, 도로횡단 시 반드시 좌우 살피기,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도로 다녀야 하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한쪽 가장자리로 운행 할 것,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중상 가능성이 4배나 높아짐을 알리며 반드시 턱끈까지 착용 등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수목 염화칼슘 방지책 설치

고창군이 동절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고창C 진입로 및 아산~산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 11.5km에 염화칼슘 방지책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염화칼슘 방지책은 수목이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으로 입을 피해 뿐 아니라 차량통행으로 인한 풍해, 건조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관목류와 초화류를 중심으로 양쪽에 설치해 2월까지 유지관리하면서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인면 태인지구 - 연지도 대실지구 재해예방사업 마무리

'재난 없는 안전행복 도시'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정읍시가 빈틈 없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먼저, 해마다 우기철이면 침수피해가 반복됐던 태인면 태인지구와 연지도 대실지구 재해예방사업을 마무리했다.

태인면 태인지구는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데다 비가 올 때마다 저지대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침수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 이곳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4월 태인 시가지 우수관거 개선 공사(L=1.57km)를 완료했다.

또 연지도 대실지구는 상습침수피해

지역으로 장마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잦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저류용량 6600㎡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

우기철 본격 가동되면 침수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정읍 여건 조성은 물론 시민의 재산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로 포장 면적 증가로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주택거주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태인지구(163억원) ▲장흥지구(51억원) ▲태인지구(4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는 ▲연지도지구(160억원) ▲대실지구(72억원)에 대한 사업을 추

진했다.

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아양?대흥지구(9억5000만원) ▲소철지구(1억5000만원) ▲풍촌지구(8억원)에 대한 사업도 완료했다.

시는 "현재도 금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며 "빈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부터 설치된 재난 예방시설(신태인?연지 배수펌프장, 연지 1연지 2대실 우수저류조)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사전 점검과 시험가동은 물론 비상 대기조 편성과 운영 매뉴얼 비치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읍성 일원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

64억원 투입 자연마당·소생태계 등 생태복원 본격 추진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주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주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총 64억원(국비 20억5000만원)을 투자해 고창읍성 일원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생태복원을 통해 묘지와 경작지 등으로 훼손되었던 고창읍성 일원(76,559㎡)에 자연형 습지, 조류관찰대, 동식물서식공간, 생태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과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 집 앞마당처럼 쉽게 오갈 수 있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 추진 전 자연마당 조성 사업부지 내에 총 425기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어 환경부와 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우려를 했으나,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전하여 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고창읍성 일원의 생태복원이 완료되면 고창문턱밖사루스

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고창갯벌탐사사루스지를 비롯해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최고의 생태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행복을"

부안해경, 류근식 정장 베스트 캡틴 선정·전액 상급기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베스트 캡틴(Best Captain)"으로 선정된 부안해경 형기정(P-120) 류근식 정장(57·사진)이 수상 상급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상급 300만 원 전액을 부안군에 기탁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류근식 정장은 1986년 순경 경채로 해경에 첫 발을 내딛었다.

"베스트 캡틴" 류근식 정장이 지휘한 P-120정은 2017년 한 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사범 60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

반사범 6건, 기소중지자(B급) 9건, 형법법 1건 등 총 76건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훈을 발휘했으며, 기관고장 선박 대상 안전관리 및 예인을 통해 선박 3척 7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부안 해경은 류근식 정장의 노력의 성과가 외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300여 척의 경비함정과 특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해경에서 단 2명을 선발하는 '베스트 캡틴'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식 정장은 "뱃속에 영예로운 상을 수여받아 모든 영광을 부안 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에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 아주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상설시장 주변 후생상가 화재안전관리 철저"

박병래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이 "부안 상설시장 주변 후생상가에 대해 화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병래 의원은 "최근 6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비롯한 전국 많은 전통시장이 화

재에 취약한 시설구조를 갖고 있어 후진국형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병래 의원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지난 1996년부터 매월 4일에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에 부안군은 유관기관과 함께 부안 상설시장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후생상가에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상설시장 주변에 위치한 후생상가들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전기 안전 점검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연지동주민센터,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CCTV 운영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운기)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주민센터는 지난 5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용 CCTV(일명 클린 지킴이)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가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는 CCTV는 캐리어 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습투

기가 많은 지역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하여 설치, 단속하는 장치이다.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경고음성(이곳은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십시오.)과 함께 고화질 자동 녹화와 경고조명, 경고문자가 송출된다.

이 장치는 기존 고정식 CCTV에 비해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이동설치가 가능해 민원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